

“여수 관광객 고속철 효과…SRT 운행땀 시너지”

수서발 고속철(SRT) 전라선 운행 왜 필요한가

전주 한옥마을·곡성 가차마을 등 정부 철도정책서 소외

국토균형발전 위해 전라선 복선화·KTX 증편도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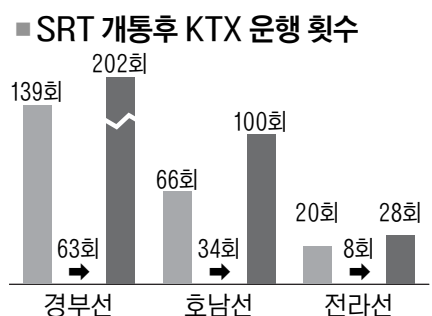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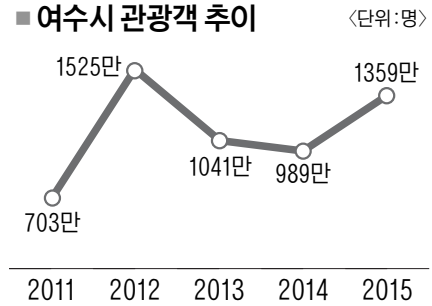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여수까지 수서발 고속철(SRT)을 운행하지 않는 것은 지역과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시급하게 SRT운행을 시작하고 기존 KTX도 증편해야 합니다.”

주철현 여수시장 등 전라선 권역 7개 시·군 단체장들은 16일 정부에 철도정책의 전라선 차별 중지를 촉구했다.

전라선 주변은 전주한옥마을과 순천만 국가정원, 여수세계엑스포장, 남원 춘향 테마파크, 곡성 가차마을, 구례 국립공원 지리산, 광양 매화축제 등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들이 있지만 정부의 철도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관광객 증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는 여수시 등 전남 동부권 시·군은 용산발 용산발 KTX 전라선 증편 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2015년 관광객은 1358만5275명(내국인 1352만4508명 외국인 6만767명)으로, 지난 2011년 702만9914명(702만2168명 7746명)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가 열린 지난 2012



년 1525만3506명(1520만584명 5만292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1041만3876명(1034만5761명 6만8115명), 2014년 988만9789명(976만5005명 12만4784명)



철도 전라선권 7개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동 광장에서 전라선권 KTX 협의회 출범식을 마친 뒤 공동건의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수 전주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유근기 곡성군수, 주철현 여수시장, 서기동 구례군수, 조준호 순천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연합뉴스

등으로 호남고속철 개통 이후 관광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서발 SRT 전라선, 용산발 KTX 전라선 증편 등이 경부선 수준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관광객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들 7개 시·군은 SRT 개통 이후 KTX 열차운행계획에도 하루 평균 왕복 운행횟수가 경부선은 139회에서 202회로 63회, 호남선은 66회에서 100회로 34회 증편되는 데 반해 전라선은 20회에서 28회로 8회 증편되는 데 그쳐 대조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아니라 지난 3월 정부가 확정된 ‘제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라선과 전라도 지역에 대한 정책은 다 빠져있다. 이처럼 전라선권 지역민들은 정부가 철도 정책에서도 차별받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결국 시장·군수들은 16일 “전라선권 152만 지역민들을 대신해 시장 군수들이 정부에 전라선권 공동변영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여수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152만 지역민들의 염원을 모아 전라선 권역의 공동변영과 국토균형발전을 위

한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기도 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관광의 핵심거점은 전주에서 여수까지 전라선에 집중돼 있다”면서 “전라선 권역 시장·군수들은 마음을 모아 반드시 전라선 KTX를 증편시키고, 수서발 SRT도 전라선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저속철에 불과한 전라선을 복선화해서 고속철로 바꿀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투쟁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한-중미 FTA 타결

한국과 중앙아메리카(중미)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현환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agua에서 6개국 통상장관과 한·중미 FTA 협상이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아시아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5개국은 모두 협정 24개 첩타에 합의했다. 다만 과테말라는 시장접근, 원산지 등 일부 민감한 분야를 이번 타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양측은 상품시장 부문에서 95% 이상의 높은 자율화율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 등 중미 측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를 약속했다. 개방 정도는 한·콜롬비아, 한·페루 FTA 수준이다. /연합뉴스

“탄핵·특검 지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의 구체적 방안을 두고 진보진영 내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계간 ‘창작과비평’ 명예편집인)가 “국민의 퇴진 명령을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라며 탄핵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백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담대하고 슬기롭게 새시대를 열어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탄핵과 특검을 박 대통령 압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 탄핵소추에 필요한 국회 정족수나 헌법재판관들의 보수 성향을 우려하는 데 대한 답변 격이다.

백 교수는 “준법정신”에 충만한 자 세라면 4·19 직후 김수영 시인이 밟았던 ‘기성 욕법전서를 기준으로 하고 혁명을 바라는’ 비보정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단호한 명령을 이행하는 보수수단으로 (특검과 탄핵을) 활용하기로 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종 전 문체부차관 소환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6일 오전 최씨의 이권 쟁기기 행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모든 의혹 사항은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제대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순실 교육도 농단 딸 정유라 중·고교 성적 등 비정상적 특혜

청담고·선화예술학교 감사

고 3때 고작 17일 출석에도

수행평가 만점·교과 우수상

서울시교육청 “고졸 취소 검토”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고교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교육청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정씨는 기본적인 학교 교육의 틀을 무시한 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교과 우수상까지 받는 등 ‘학사 농단’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청담고,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정씨의 고교 졸업 취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국회 등에서 정씨의 출결 관리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31일부터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와 선화예술학

정유라 중·고교 출결 특정감사 중간보고 결과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과정)

● 무단결석 10일을 출석 또는 결석결석으로 처리한 것 확인

학년도	수업 일수	결석처리현황		무단결석을 출석처리	지각·조퇴·결과	정상 출석일
		결석	공결			
중1 2009	205	2	11	3	6	183
중2 2010	205	19	27	0	17	142
중3 2011	205	22	47	7	54	75

청담고등학교

● 무단출결·승인 없이 대회 참가 및 대회 참가 공결처리 후 무단 출결

● 출석일은 126일(고1), 137일(고2), 17일(고3)로 확인되었지만, 오전수업 담당 교과 담임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출석일은 확인되지 않음

학년도	수업 일수	결석처리현황		학교정상의 대외출결	무단 결석	승인 없이 무단·대회 무단 참가	고3 전월가	출석일 (7)
		결석	공결					
고1 2012	194	12	0	46	10	0	-	126(?)
고2 2013	195	5	0	36	10	7	-	137(?)
고3 2014	193	3	0	132	141	0	10	22

자료/서울시 교육청

연합뉴스

교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했다.

우선 청담고 감사 결과, 정씨가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대한수학회 공문을 근거로 공결(결석을 출석으로 인정)처리를 받은 기간에 해외로 무단 출결하거나 학교 장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고교 3학년 때 정씨가 실제로 등교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날이 17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충학습 결과 제출이 확인되지 않는 날은 3학년 때만 141일에 달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성적 처리도 엉터리로 이뤄진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교사 1명이 최씨로부터 기금(30만원)을 수수하

정부, 5·18 다룬 한강 소설 사상검증

‘소년이 온다’ 세종도서 선정 심사서 제외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의 5·18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 등 다수의 책들이 블랙리스트로 지목돼 정부가 사상검증까지 한 흔적들이 확인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채식주의자’로 세계적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사상적 편향성’을 들어 세종도서 선정 심사서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문화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블랙리스트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진흥원에서 받은 2013~16년 세종도서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 세종도서 문학 나눔 3차 심사까지 오른 소설 132권 중 40권이 마지막 3차 심사서 탈락했다. 3차 심사서서 제외된 작품은 ‘소년이 온다’(한강·창비), ‘눈과 푸른 사다리’(공지영·창비), ‘사지르럽 잔혹사’(이시백·실천문학사) 등이다.

‘소년이 온다’는 국가 폭력이 어떻게



한국전쟁 중 흥남 철수 때 목숨을 걸고 피난민을 구조한 선장에 관한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진흥원의 민경미 출판산업진흥본부장은 16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소년이 온다’는 총 25종까지 선정하도록 한 출판사 안배 차원에서 조정(제외)한 것일 뿐 내용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진흥원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5·18, 북한, 개성공단, 마르코스, 정치인 등의 키워드가 있는 책 다수가 심사서서 탈락했다”며 “특히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책에 줄을 쳐가며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검사해, 사실상 사전 검열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소통중심의 의회, 대안·현장 중심의 민생의회,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제223회 영광군의회 개회
- 제2차 정례회 -

영광군의회의원 일동은 군민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기 위하여 군민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11월 25일(금) ~ 12월 16일(금)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는 제223회 영광군의회(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군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영광군의회

등록번호:전남·목포·국제-2013-001

국제결혼 초혼 재혼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주의 사항

국제결혼 계약시 반드시 시청, 여성가족부 국제결혼 담당자에게 필수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바랍니다.
※무등록자는 파헤발생시 법적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바랍니다.

국제결혼 사고피해대비 ① 5,000만원 보증보험 가입업체 ② 자본금 보유기준 1억원이상 시정에 신고업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611247-7700 0621372-9777

※광주 전남·전북 지역 출장상담 가능합니다.

아름다운 글씨는 쓰는 사람의 얼굴이고, 마음입니다.

내 아이의 성적 **팍 팍** 올려주는 **글씨교정**

한글, 한자, 영어, 숫자

모음을 바로 세워주는 교정틀
· 띄어쓰기, 문장부호 지도

글씨교정틀 위에서
인지능력 키우고, 자신감 **두배**로

· 예비선생님반(칠판글씨) · 취업반(논술체)
· 초, 중고(노트 필기체) · 성인반(공서체)

글씨교정기 교정 노트 ▶출강지도 가능

글씨교정 창업반·강사반 모집
바른글씨 교육원

교육상담 062. 525-9933 062. 269-0112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저금리 시대’ 투자대안, NPL실전문자비법
명쾌한 이론 + 실전사례 중심 강의 + NPL물건추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노후대책이 없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경매를 뛰어 넘는 재테크!!

교육특징
돈벌고 세금까지 절세하는 NPL투자 7가지 핵심 수익극대화 비법!
NPL 추천물건 위주, 실전사례 중심 강의 NPL고수가 되는 절호의 기회!
자본 없이도 공장을 소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2016년도 동계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6. 11월 21일(월) ~ 12월 23일(토)
· 수업기간: 2016. 12월 19일(월) ~ 2017년 2월 4일(토)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12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lifelong
· 접수문의: 0621230-7700~2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